

한국문화교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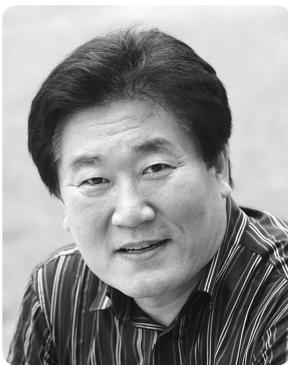
31호 2019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16, 408호 (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베아티투도(beatitudo)



윤문원
작가, ICKC 운영위원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찰랑대는 느낌이다. 편안하고 평온하게 가슴 가득 스미는 잔잔한 빗물 같은 것이다. 행복은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고, 남에게 필요한 삶

이 될 줄 아는 것이다.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에 희망을 품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지금 현재 하는 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복은 성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공 여부를 떠나 삶의 길목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추구하는 걸 이루는 것은 성공이지 행복이 아니며 추구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고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친구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헤매면서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허둥대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찬찬히 자신의 주위에 있는

행복해지려면 감사에 눈을 떠야 한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우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지 행복은 아니다.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며 헤아려 보라.
행복은 자기가 가진 것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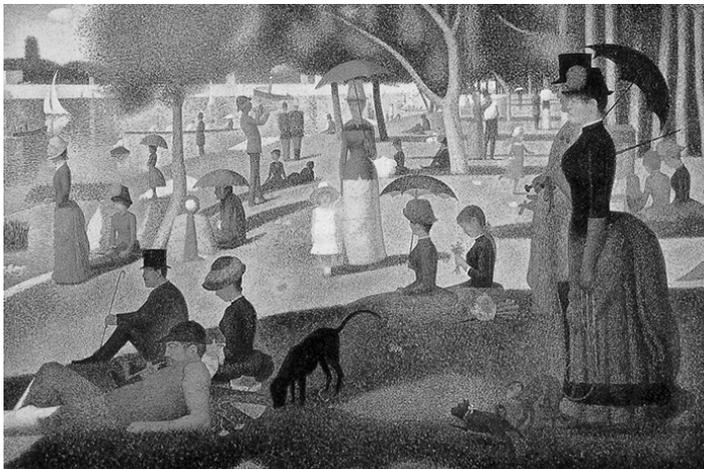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많은 사람이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으면 현재는 불행하다는 방증이다.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다. '여기'가 바로 행복의 장소다.

'베아티투도(beatitudo)'는 행복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행복하게 하다는 '베오(beat)'는 동사와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뜻하는 '아티투도(attitudo)'라는 명사가 합친 단어이다. 즉 '베아티투도'는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행복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행복은 남이 가져다주지 않으며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간명하다. 없거나 부족한 쪽을 바라보면 만족할 줄 모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있는 것 쪽을 바라보면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느 관점에 초점을 맞추느냐이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에 눈을 떠야 한다. 감사가



피에르 쇠라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884)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우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지 행복은 아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신의 삶에 자족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니체는 말했다.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정확히 말해 최소한의 것, 가장 부드러운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사랑거리는 소리, 하나의 숨소리, 하나의 날갯짓, 하나의 눈짓.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을 이루고 있다.”

행복이란 삶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으로 거창한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자기 생각이다. 행복의 조건은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도달하고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즐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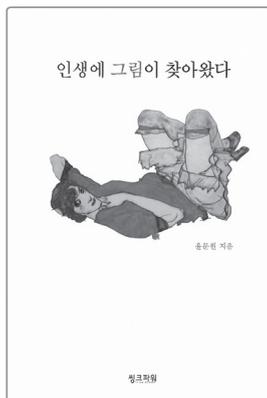
움을 망치지 않는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타인과 비교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위를 비교하면 자신이 비천해지고 아래와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편하다는 증거다. 정체성과 자아를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감추는 것과 같다. 비교하면 다름이 보이는데 다름은 틀림이나 모자람이 아닌 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행의 싹을 키운다. 비교하여 남의 삶을 베끼려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교하고, 현재의 자신을 과거와 미래와 비교하는 것도 불행의 씨앗이다. 비교하는 순간 삶의 리듬은 헝클어지고 자신의 모습과 목표가 초라해 보이고 허황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한 데서 행복의 모양새를 스스로 갖출 수 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여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만 활용해야 한다. ■■■■■■■■■■

- 윤문원, 『인생에 그림이 찾아왔다』(생크파워, 2018) 중에서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인성교육 만세』, 『길을 묻는 청소년』,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엄마가 미안해』 등 50여 권의 저서가 있으며, 다수의 저서가 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의 권장도서로 선정되었다. 저서 중 여러 글이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15곳에 게재된 바 있다.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정혜진

중국 화더푸학교 한국어 강사

화더푸 학교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특성화 수업을 주로 하는 한국의 대안학교 같은 곳이다. 일반 중국학교와 다르게 바이올린, 도자기, 서예, 무예 등의 예체능 수업이 있으며 학년마다 특활 시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한다. 내가 맡은 4학년은 한국어를 선택하여 수업이 이미 1년 이상 진행된 상태였으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매우 낮았다. 나는 우선 교재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 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먼저 노래를 통해 즐겁게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첫 수업에 동대문 노래 부르기를 했다.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율동도 알려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성공이다. 첫 수업 이후 내가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동대문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신나게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주제별 활동 수업을 한다. 예를 들어 숫자를 배우면 종이에 숫자를 쓰고 바로 3·6·9 게임을 한다. 또는 가족이나 학교 물건에 대해 12~15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면 빙고 게임을 한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따라 쓰고 읽어야 하기에 집중한다.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옆 친구가 제대로 맞추었는지도 신경을 쓰니 지루해하지도 않고 수업 진행도 효과적이다. 게임을 하면 아이들은 상을 원해서 먼저 마친 학생, 이긴 팀의 부상으로 초콜릿을 주었다. 여러 번 발표한 아이는 초콜릿들이 자기 책상 위에 쌓여가니 행복해 했고 이걸 본 옆 짝꿍은 승부욕이 생겨 더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그런데 수업 끝나기 5분 전, 갑자기 아이들이 초콜릿을 숨겼다.

“왜 그래?”

“우리 학교는 상으로 무엇인가를 주면 안돼요. 걸리면 담임선생님께 혼나요. 선생님도 혼나실 수 있

으니 얼른 초콜릿을 숨기세요.”

“미안... 선생님이 몰랐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아니에요! 주시니 좋아요. 대신 이걸 선생님과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특별 수업이고 외국인 교사니까 ‘나의 재량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이들과 비밀을 만들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다음 주에는 <아기 상어>라는 노래를 한국어 동영상과 보고 따라 부르게 했는데 갑자기 2~3명이 상어의 색깔에 맞춰 색칠을 했다. 게다가 한번 영상을 보고 누가 더 많이 기억해서 상어 색을 찾아 색칠하는지 경쟁이 붙었다. 그것을 보고 다음 시간 학습 목표는 색깔 이름 알아보기가 되었다. 노래는 파트 별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대로 했더니 할아버지 상어를 맡은 아이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부르니 재미도 있고 해당 부분은 모두 외워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내 수업이 끝나면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나를 배웅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간식, 꿀, 과자, 열매 씨 등을 몰래 내 가방에 넣어준다. 교실에서 나오는 길에 나의 가방은 아이들이 준 선물로 가득 찬다. 이 비밀을 모르는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나 봐요. 배웅도 받고 좋으시겠어요.” 하신다. 아이들에게 나는 한국인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자기들과 비밀을 공유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 또

한 아이들은 나의 고민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 늘 다음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질문이 곧 수업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아이들도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지.”

“와! 우리랑 똑같다. 어떻게 하세요?”

그럼 바로 단어를 배우고 몸으로 익힌다. 오늘도 또 하나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산가지 놀이를 하자!”

“어? 우리도 이 놀이 있는데. 다음에 한국 친구들과 하고 싶어요. 그치?”

“그러게. 우리랑 뭐 다르겠어?”

아이들은 어느새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또 하나의 우정 공동체를 꿈꾼다. 아마 이럴 때 국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문화, 한국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학생들과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태권도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서명원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겸임교수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확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가치와 위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 자산 발굴 및 태권도 상징화의 가치에 대한 보존-개발-활용 측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태권도가 본래 지니고 있는 전통 무예 가치와 정신 그리고 철학 분야의 경우 매우 취약하다. 특히, 우수와 가라테와 같은 경쟁 무술과의 차별성 부족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으므로, 국기로서의 태권도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 선정 및 국기(國技) 지정으로 태권도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올림픽 핵심 종목 지위와 약 1억명 이상의 수련 인구 인프라로 태권도 세계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중심의 편중된 수련계층, 태권도 정체성 논란과 콘텐츠 부족, 태권도 단체들의 글로벌 리더십 및 신뢰성 위기 등의 문제점으로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브랜드 가치 제고, 태권도 세계화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과 새로운 전략을 통한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1. 태권도 상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심사제도 구축

전 세계 210개국, 1억 3,00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태권도 수련 인구는 명확한 수치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9년 국기원 등록 품·단 현황을 살펴보면, 유품자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으나, 유급자 수련인구에 대한 수치는 전무하여,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자칫 통계적 오류의 함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1단(품)에서 4단(품)까지 승품(단)하는 태권도 수련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확한 수련 인구수의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태권

도 수련 지속에 대한 전략적 방안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표준화되지 못한 심사 제도와 무예 태권도의 심사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태권도 심사 제도가 진정한 무예로서의 태권도 수련 정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하여, 태권도의 가치와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유품자와 유단자 심사 내용의 차별화를 통한 무예 태권도로서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학문적 역량 강화를 통한 태권도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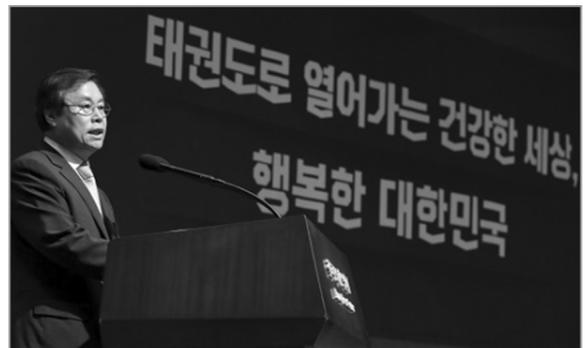
최근,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나, 본질적인 방향에서의 연구보다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태권도의 5대 정신인 예의, 염치, 인내, 극기, 그리고 백절불굴 정신과 도와 효를 근본으로 하는 교육, 철학 분야에서 세계화된 무예로서의 발전이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태권도 수련인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었다

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태권도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유·무형 자산의 상징화와 지식자원화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교육 중심을 위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국기 태권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1)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태권도 관련 학문 영역별 전문 인력 양성 2) 정기적인 학술대회, 공청회, 그리고 포럼 등 개최 3) 융·복합 학문으로서의 태권도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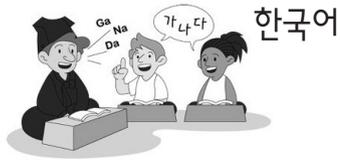
태권도가 짧은 기간에 세계화에 성공한 것은 196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지도자를 파견하여 태권도를 널리 알렸고, 올림픽 핵심종목으로서 국제 스포츠 현장에 핫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로서의 매력 감소, 1회성 초청 교육 또는 교류사업 등의 현황으로 태권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관심에 몰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2019년,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 공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가치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태권도 모국으로서 국가 위상이 드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



2017년 6월 토마스 마흐 IOC 위원장이 “국제태권도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_ 제6회 국제태권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18년 6월 15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사진_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 목적 외국인 위한 '여행한국어' 교재 공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하 재단)은 여행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인 『여행한국어』를 2월 1일 한국어·한국문화 허브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gdang.org)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전 세계의 특수 목적 한국어 수요에 대응하고, 재단의 한국어 교재를 다각화하기 위해 『여행한국어』를 개발했다.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된 『여행한국어』는 교통, 숙소, 관광 등 한국 여행 시 활용할 수 있는 표현과 문화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회화 초록집, 여행 어휘 사전·다이ารี 등 여행 도중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자료도 제공한다.

교재는 듣기 학습이 가능하도록 음성파일과 함께 지원되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세종학당의 전자책으로 공개된 『여행한국어』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재단은 『여행한국어』를 종이책으로 제작해 4월 중 전 세계 세종학당에 배포할 예정이다. 강현화 재단 이사장은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한국어』를 통해 한국여행은 물론 한국어·한국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정소영 기자, 2019/02/01



▲ 세종학당재단은 여행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인 『여행한국어』를 2월 1일 한국어·한국문화 허브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아시아발전재단,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케어스’ 기부금 1억원 전달

(재)아시아발전재단(ADF)이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정 기부금 1억 원을 지난 1월 25일 세계태권도연맹(WT)에 전달했다.

조남철 ADF 상임이사가 조정원 WT 총재에게 전달한 지정 기부금은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중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국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기부금 중 5,000만원은 네팔 소년원생 및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엄홍길휴먼재단’이 네팔 오지에 설립한 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국 태권도 교육에 쓰일 예정이다.

조남철 상임이사는 “아시아발전재단은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재단과 연맹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WT는 아시아 지역 회원국과 함께 아시아발전재단의 지정 기부금이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국 고아, 소년원생, 자연재해 지역 피해자 등 소외계층에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해 9월 28일 (재)아시아발전재단, (사)한국문화교류재단(ICKC), 그리고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와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출처] 한국일보, 성환희 기자, 2019/01/17



◀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조남철(오른쪽) 아시아발전재단(ADF) 상임이사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태권도 케어스’ 지정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태권도, 온두라스 공립 초등학교 정규과목 채택 ... 중남미 최초

태권도가 중남미 최초로 온두라스의 공립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목으로 정식 채택됐다.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은 18일(현지시간) 온두라스 태권도교육재단, 국기원, 온두라스 교육부와 함께 수도 테구시갈파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 지도자, 교사, 학부모, 태권도 수련 학생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초등학교 태권도 정규 수업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은 선택 수업이 아닌 의무 수업으로 진행되며, 한국인 사범이 아니라 공인 단증을 가진 온두라스 현지 지도자들이 가르친다. 특히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고학년보다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체육 수업 시간에 주 2회씩 실시된다.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은 그간 중남미 지역의 경우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정부 기관 대상 태권도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 태권도 교실 등이 운영된 적이 있다며 온두라스 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립학교의 정규과목으로 태권도 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미 온두라스는 한국보다 약간 큰 11만2천km²의 국토에 9백만 명 정도가 사는 나라로, 태권도는 축구에 이어 제2의 스포츠로 인정받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전 대통령은 태권도 공인 3단으로서 2011년 방한 당시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명예 9단 단증을 받은 바 있다.

[출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원 특파원 = 2019/02/19



◀ 2월 18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립 초등학교 태권도 정규 수업 시작 기념행사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 제공 = 연합뉴스)

■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 및 국제 교류를 위한 4자 협약 체결

ICKC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재)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네 단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개발국에 대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과 아시아 각국 등 해외 교육 및 지원 사업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른 상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남철 ICKC 이사장이 2018년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18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연차대회' 및 'GCS 캄보디아국가본부 결성식' 행사에 참석하여 소정의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캄보디아에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지난 2018년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놈펜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국제대회 행사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와 조남철 ICKC 이사장이 참석하여 행 추은 나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에게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ICKC의 기부금과 2018 제주세계평화경기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초청 자선공연 수익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캄보디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조정원 총재와 행 추은 나론 장관은 이르면 2019년 7월 경 '캄보디아 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캄보디아 친선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한, 캄보디아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프놈펜 2년제 체육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을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고, 태권도화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8 올해의 인물 시상식'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8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2월 25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 조남철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다. 재외동포신문은 창립한 해인 2003년부터 매년 재외동포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동포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그 뜻을 기리는 의미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한인회 부문), 고석화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김정훈·설훈·이석현 국회의원(정치·행정 부문),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교육 부문), 이천영 광주고려인마을 이사장과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오한남 대한민국의배우협회 회장(체육 부문), 전규상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집행회장과 조바실리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장(특별 부문) 등 7개 부문 11명이 선정됐다.



▲ 재외동포신문이 주최하는 '2018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들(앞줄)과 시상자 그리고 내빈들

2018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동근, 김동현, 김명수, 김민영,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영훈, 김용구, 김용준, 김정복,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중근, 김지운,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기연, 박미하, 박원출, 박익근, 방용미, 배대환, 성효동, 손희정, 신미선, 심재익, 유영찬, 유지호,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향구,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한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 광, 최영섭, 최준이,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삼승유화(주),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젯한도, (주)P&H (가나다순,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103,140,000원

2019년 ICKC 문화 탐방 안내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는
국내·국외 문화탐방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문화를 보는 안목을 높이고 한국문화의 국제 교류라는
본연의 창립 취지를 이어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주요 탐방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날짜	장소	주요 코스
4월 18일 (목)	낙산성곽	홍인지문 - 한양도성박물관 - 팔각정(홍덕이발) - 낙산정상 (전망대) - 낙산전시관 - 낙산길 - 마로니에공원
5월 16일 (목)	경희궁, 서대문	서울역사박물관 - 경희궁 - 경교장 - 한양도성 - 흥남파 가옥 - 권율장군집터(딜쿠샤) - 독립문 - 독립관(현충사) - 서대문 독립공원
6월 20일 (목)	청계천	청계천문화관-판잣집테마존-두물다리-고산자교-무학교- 비우당교-황학교-서울풍물시장
9월 19일 (목)	덕수궁, 정동	덕수궁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정동제일 교회 - 중명전 - 이화학당 - 손탁호텔터 - 구러시아공사관
10월 17일 (목)	창덕궁	창덕궁 돈화문 - 인정전 - 선정전 - 희정당 - 대조전 - 낙선재 - 돈화문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문화 해외교류 활동(국외 탐방) 또한 계획 중입니다.
일정 및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 ※ 이밖에도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 참가, 공연·전시 관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사무실 02-2285-1070 휴대전화 010-3531-3494 (최영옥 사무국장)
이메일 hangyobon@gmail.com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3.30. 총회 및 창립 7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원,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명예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옥랑 꼭두박물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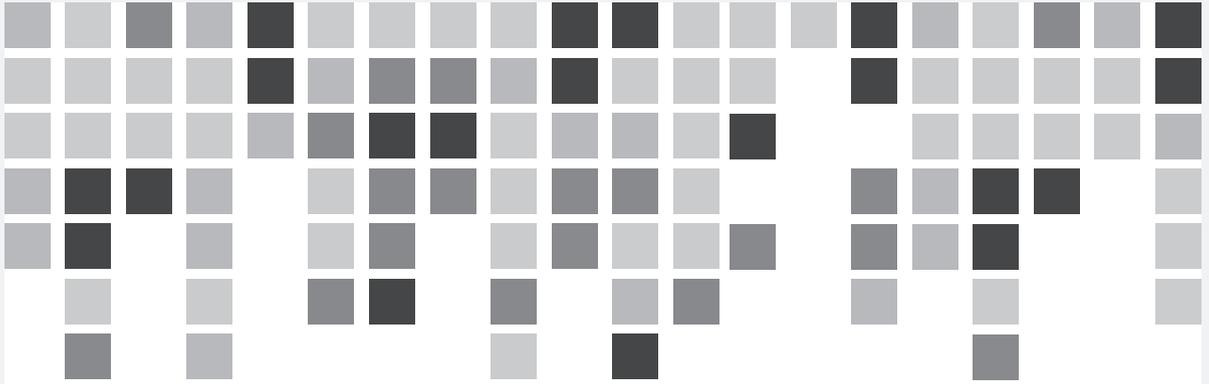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이상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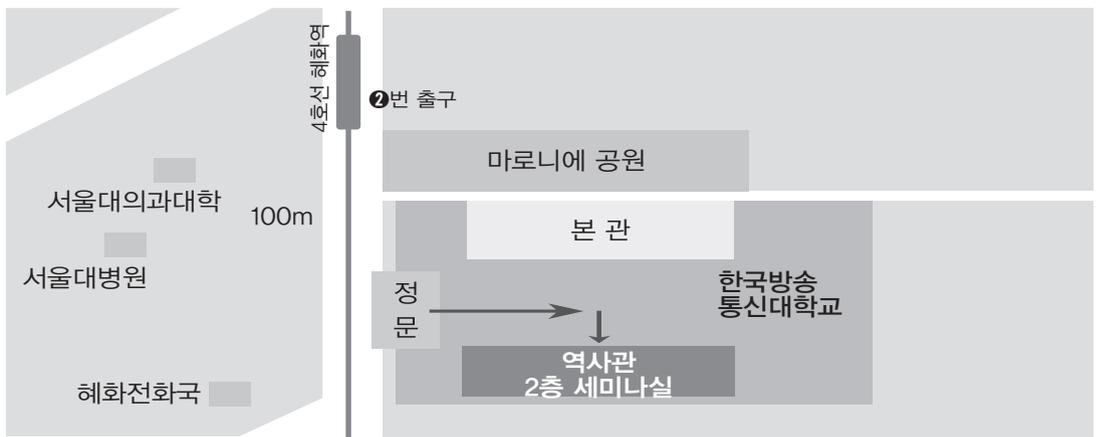
Asia Development
Foundation

창립 8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창립 8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정기 총회 및 창립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와 인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뜻 깊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_ 2019년 3월 29일(금), 14:00~17:00
- 장 소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 역사관 2층 세미나실
- 프로그램_ [총 회] 개회사 및 경과보고, 안건 상정 및 승인
[포 럼] “문화와 인격”_ 윤문원 작가

◆ 찾아오시는 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승동)



-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직진
(방송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 2층입니다.)
-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방송대 본관 지하)
-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조 남 철** 드림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16, 근신빌딩 신관 408호 홈페이지 <http://www.ickc-seoul.net>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